



onidoi!

Hi, Stranger!
Welcome to nidoi world =33

★ 폭신한 상상의 별

nidoi!

평범했던 실과 천이 손끝에서 다시 빛어진다.

꽃으로 피어나고 케이크로 구워져 작품이 될 준비를 마친 녀석들은 얌전히 요정 대모의 마지막 주문을 기다린다. 두 예술가가 덧입하는 건 마법 가루 대신 이야기 가루.

오브제에 이야기를 더해 생명을 선물하는 브랜드, 니도이(nidoi)를 소개한다.
주소는 은하수 어딘가, 니도이 별에서 보낸 신호가 이곳에 도착했다.

지구에서 니도이 행성으로+



니도이(nidoi)라는 이름은 언제든 숨을 수 있는 나만의 은신처를 의미한다. 동지를 뜻하는 스페인어 'nido'와 나를 뜻하는 영어 'i'의 합성어. 근심과 걱정 없는 동화 같은 세계를 꿈꿨던 박새희 대표(이하 세이지)와 김진희 대표(이하 맥스티)의 소망이 담긴 브랜드다. 이곳의 오브제는 보드라운 실이 주재로이며 코일링과 터프팅 등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 일상적인 물건이 이들의 손을 거치면 알록달록한 폭신함을 만나 특별하게 바뀐다.

어린 시절, 의자나 빨래 건조대 위로 이불을 덮어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곤 했다. 아이의 체구여야 앉을 수 있는 좁고 뜨끈한 그곳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된 나에게 빨래 건조대 위 이불은 더 이상 아늑한 지붕이 되어주지 못한다. 몸과 마음을 어디든 구겨 넣고 싶은 날, 다 커버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방황하는 우리에게 자칭 '비밀 요원' 세이지와 맥스티는 슬며시 티켓 한장을 건넨다. 출발지는 지구, 도착지는 니도이 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일등석 티켓이 손에 쥐어진다. 이들이 만든 세계관 속에서 니도이는 가상의 별이며 고객은 이 별에 놀러 온 지구인 여행객이다. 이 동화 같은 브랜딩은 홈페이지와 SNS를 콘셉트에 맞게 꾸미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니도이는 매 시즌 새로운 오브제와 함께 주민 캐릭터를 공개한다. 사자탈을 쓰고 무대에 오르는 락스타 곰 '록키', 여행객들과 함께 은하수를 항해하는 토키 선장 '토니'와 도로 옆에서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생쥐 '포트릭' 등 벌써 일곱 마리의 주민과 일곱 개의 개성 있는 이야기가 세상에 등장했다. 가장 아끼는 주민이 누구인지 물자 두 작가의 고민이 길어졌다.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곰 록키와 개구리 '플립'이었다.

"무대 아래에서의 록키는 낯을 많이 가리는 부끄럼쟁이 곰돌이예요.
하지만 꿈을 이루고 싶어 가장 용감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자의 탈을 쓰고 무대에 오르죠.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또 플립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볼 줄 알아요.
언제나 자신의 비밀 정원에서 파티와 낭만을 즐기는 플립이 부러워요."



아름다움을 간직 하고 싶다면, Flower pot

니도이의 화분은 늘 같은 모습으로 여행객의 곁을 지킨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유독 싫어했던 세이지가 헤어지지 않는 관계를 상상하며 작업하기 시작한 오브제다. 우리는 수많은 이별을 겪으며 무너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한다. 친구나 가족을 잃는 것부터 감정, 추억 그리고 짊음과 헤어지는 것까지. 놓아줄이 익숙지 않은 이에게 시들고 저무는 일은 무섭다. 세상이 나를 두고 빠르게 흘러가 결국 나만 시들어 버린 사람으로 남을까 두려워 쉬지 않고 달린다. 타인과의 관계도 놓지 못하는 것 중 하나다.



flower pot, 8만원.

인연의 줄기가 생기를 잃지 않게 끊임없이 물을 줘야 한다. 꽃이 피면 지는 것도 당연한데, 시듦의 허무함을 걱정하느라 만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모든 꽃봉오리를 사계절 내내 활짝 피우려 애쓰다 이 화분을 만났다. 시들까 걱정할 필요 없이 항상 말갛게 피어 있는 꽃. 물관과 체관 대신 색색깔 실로 이루어진 꽃이 나에게 위로를 건넨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마음 놓아도 괜찮아!”

The comfort that flowers bring



I'm never going to die,
so you can relax

✧행운을 간직하고 싶다면, Floofy Lucky Scoop



floofy lucky scoop, 4만5천원.

시들지 않는 행운을 선물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오브제는 한 해의 시작을 격려하는 마음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잊기 쉬운 연초의 응원들. 그 따뜻한 마음이 휘발되지 않기를 바란 거다.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마음의 기억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잔디밭에 쪼그려 앉아 있던 어느 여름날의 기억으로. 세 잎 사이에 숨은 네 잎을 찾고 말겠다는 내 다짐은 저무는 해와 함께 볼멘소리로 바뀌었다. 그날 나에게는 운도 끈기도 없었지만 행운을 대신 심어줄 수 있는 슈퍼우먼은 있었다. 며칠이 지나 네잎클로버 같은 건 다 잊어버렸을 때쯤, 엄마가 뺏뺏하게 코팅된 행운을 내밀었다. 영영 그 효력이 다하지 않을 것만 같은 완벽한 모양의 네잎클로버. 그건 꽤 오랫동안 내 지갑 속 한 자리를 차지했다. 행운(幸運)에 쓰이는 한자는 '다행 행'에 '옮길 운' 자이다. 글자에서부터 옮긴다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 도톰한 네잎클로버를 모종삽으로 한 움큼 떠 누군가에게 선물해 보자. 내가 옮긴 행운이 그 사람 곁에 머물다 다시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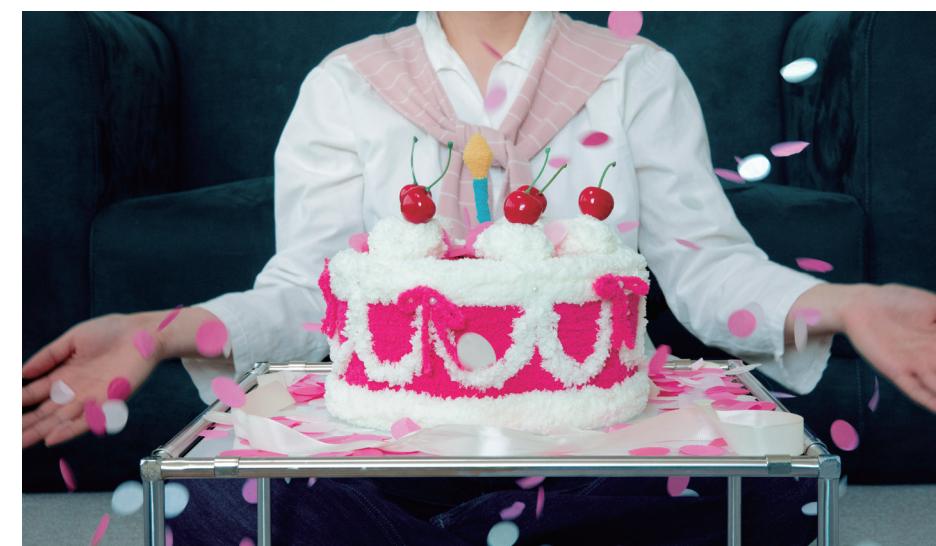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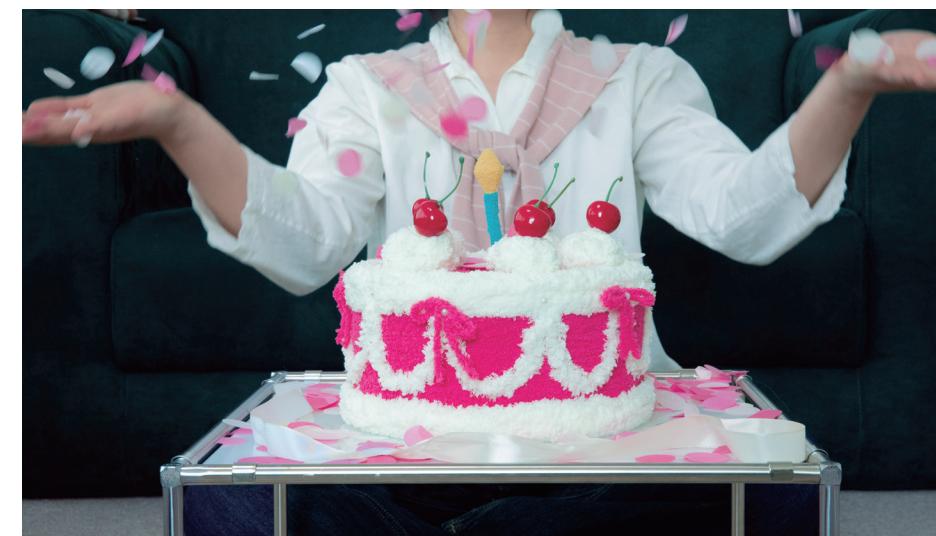
If I could give you unfading good luck,
what would that be like?"

특별함을 간직하고 싶다면, **Po Baker's Bakery**

꼬마 생쥐 포트릭이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베이커리를 열었다. 초를 밝히는 건 꼬리에서 나오는 꺼지지 않는 불꽃. 사랑스러운 설명에 미소가 지어지는 케이크 오브제다. 오늘날 케이크를 사는 목적은 비단 맛있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다. 문구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달콤함을 추구한다. 예쁘게 꾸민 케이크는 축하하는 마음을 더 특별하게 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빙 상자와 다 먹은 그릇을 치울 때면 아쉬움이 방안을 가득 채운다. 두 작가는 축하의 날이 끝나지 않는 기분을 선사하고 싶었다. 애정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먹는 이에 따라 천차만별일 터. 이 폭신한 디저트는 입에 넣을 수는 없어도 그 맛을 무궁무진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초 앞에서 오래도록 두 손 모아 소원을 빌 수도 있다. 누군가의 행복을 빌며 케이크 시트를 오븐에 넣는 포트릭의 마음이 덩달아 부풀어 오른다. 연인과 함께하는 로맨틱한 밤 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파티, 그도 아니라면 특별함이 필요한 무료한 일상에 이 달콤한 상상을 곁들이길 바란다.



po baker's bakery, 8만3천원.





bouquet, 4만5천원.

니도이 세계관 이야기는 하나의 서사로 흘러간다. 홈페이지 속 행성 안내서와 오브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민들을 소개하는 글. 그들을 모으면 한 권의 동화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대부분 두 작가가 온종일 함께 작업하며 나누는 대화에서 출발한다. 이 별에는 무엇을 타고 갈까? 다음 주민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 주제를 마구 던지며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마음이 쿵, ‘이거다!’ 하는 순간이온다. 서로의 눈이 아주 반짝이는 걸 감지하는 순간. 그렇게 비눗방울을 불듯 하나둘씩 주고받은 영감이 모여 지금의 니도이를 이뤘다.

작품과 SNS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는 오프라인 전시로 구현된다. 전시는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여행객을 대면하며 작업을 이어갈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다. 특히 작년 봄, 홍대 ‘사무립’에서 열린 전시에 참여했던 기억은 두 작가의 원동력 중 하나다. ‘사무샵’은 작가가 상주하지 않았기에, 다이어리와 필름 카메라를 준비해 방문자가 직접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했다. 전시가 모두 끝난 뒤 그곳에 도착한 두 작가를 반기는 것은 여행객들의 감상으로 꽉 찬 종이와 필름이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서로 다른 행성에 사는 우리가 흔적을 공유한 기분이었어요.”

니도이의 오브제는 두 작가가 일일이 손수 만들기 때문에 시즌별로 정해진 기간에만 주문할 수 있다. 수익보다 브랜드가 가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선택이다. 그들은 오브제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작품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입히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여행객이 이야기에 완벽히 빠질 수 있도록 적당한 편안함을 지켜야 한다. 너무 유치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지도 않게. 작품을 구매한 여행객은 마치 머나먼 별에 살고 있는 친구와 펜팔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보내는 이에 ‘니도이 별’이라고 적힌 택배 송장과 동봉된 주민 엽서 등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 섬세함이 받는 이의 마음에 가닿는다. 모든 오브제는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어진다. 펜팔의 묘미는 만나지 않고서도 서로를 아끼게 되는 것. 이들이 고객을 대하는 방법이다.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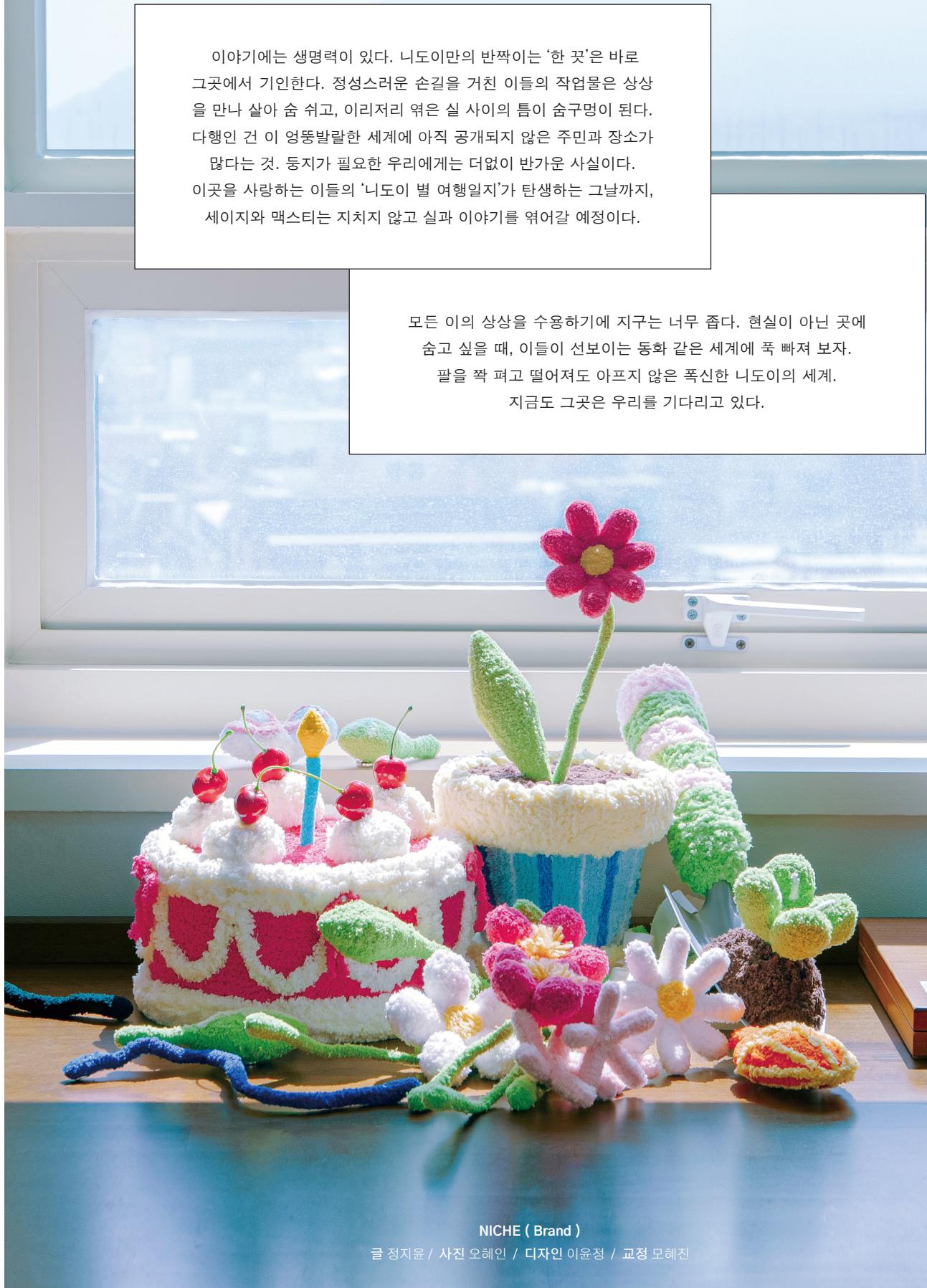
Instagram
Website

@nidoi.object
nidoi.com

폭신한 상상의 별, 니도이

이야기에는 생명력이 있다. 니도이만의 반짝이는 ‘한 꾼’은 바로 그곳에서 기인한다.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친 이들의 작업물은 상상을 만나 살아 숨 쉬고, 이리저리 엮은 실 사이의 틈이 숨구멍이 된다. 다행인 건 이 엉뚱발랄한 세계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주민과 장소가 많다는 것. 둑지가 필요한 우리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사실이다. 이곳을 사랑하는 이들의 ‘니도이 별 여행일지’가 탄생하는 그날까지, 세이지와 맥스티는 지치지 않고 실과 이야기를 엮어갈 예정이다.

모든 이의 상상을 수용하기에 지구는 너무 좁다. 현실이 아닌 곳에 숨고 싶을 때, 이들이 선보이는 동화 같은 세계에 뚝 빠져 보자. 팔을 짹 펴고 떨어져도 아프지 않은 폭신한 니도이의 세계. 지금도 그곳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NICHE (Brand)

글 정지윤 / 사진 오해인 / 디자인 이윤정 / 교정 모혜진